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유년부

유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유년부 교육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Contents

❁ 12월 교육 내용	04
❁ 12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 12월 둘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 12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0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1
어린이 QT God's Time	32
❁ 12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2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3
어린이 QT God's Time	44
❁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50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51
❁ 위드 포토	52
❁ 12월 추천도서	55
❁ 12월 교육활동자	56
❁ 12월 위드스티커	59



12월 교육내용

예수님을 기다려요

암송 구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첫째주♥

“영락교회
신앙지도원칙”
(창립기념주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둘째주♥

“평화로운
세계”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1:10)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로 오셨어요.**

♥셋째주♥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넷째주♥

“임마누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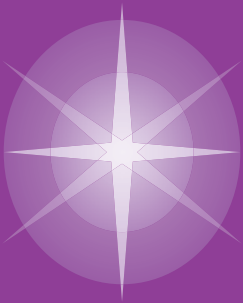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예요.**

실천 내용

1.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2.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정과 이웃에게 전하기



12월 첫째주
2016년 12월 4일~10일





♥ 주제 : 예수님을 기다려요

♥ 암송구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 성경 이야기 : 영락교회 신앙지도원칙 ▷로마서 1:8-17

♥ 오늘의 포인트 :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8절)

②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6절)

★ 교육 활동 - “교회를 세워요”

- 1)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 2)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지 생각해 보세요.
- 3) 위드지 부록을 참고해 색종이로 교회를 만들고, 지도 위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나라를 찾아서 붙이고, 그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이유를 서로 이야기 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예수님을 기다려요

♥ 암송구절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 오늘의 포인트 :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로마서 1:8-17

‘복음’이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롬 1:16).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우리를 구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자 신의 하나 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어요.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의 빛진 자라고 말했어요.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전해지기 시작한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는 1945년 12월 2일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세워져 지금까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빛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그 분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 교회가 그래오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요.



Q 1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Pray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말라기 1:1~3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1.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2.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3.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 말씀 속으로 ★

1.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1절)

			를 시켜

★ 삶 속으로 ★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특별한 계획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이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믿음이 약해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며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불안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사랑하며 함께 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해요

부
모
님
과
함
께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12월 한 달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본문

말라기 1:4~5 “모두에게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

4. 예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 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 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 이라고 불릴 것이다.

5.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 말씀 속으로 ★

1. 에돔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맞은 것끼리 연결해보세요.(4절)

- | | | |
|---------|---|-------------------|
| 에돔의 말 | • | •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
| 하나님의 말씀 | • | •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

2.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할까요?(5절)

“주님은 에서도 을 받으신다”



★ 삶 속으로 ★

하나님을 떠난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읍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외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에돔의 성읍을 헐어버리며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게 될 것이예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돌보시고 악한 것들을 심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보호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기를 바라요.

부 모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제가 되길 원해요.
우리의 힘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높이는
제가 될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7.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8.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 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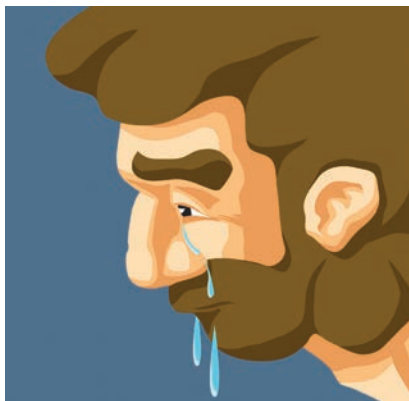
9.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으레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10.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 말씀 속으로 ★

1.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나요?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7~8절)

- ①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쳤다.
- ② 건강한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 ③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 ④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 삶 속으로 ★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질병을 가진 짐승을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레 22:17~25, 신 15:21).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흠이 있고 더러운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였어요. 결국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바치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예배)을 드리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진심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부
모
님
과
함
께

하나님! 날이 갈수록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제가 되게요. 평생토록 진실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 할게요.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라기 1:11~14 “해가 뜨는 곳부터 해가지는 곳까지”

11.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 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12.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 드리는 상짚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13.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싫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흠뻑거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14. 자기 짐승 때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 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말씀 속으로★

1.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높임을 받으실까요?(11절)



가

곳부터

가

곳까지

★삶 속으로★

하나님께서서는 악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에게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그저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를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면 안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방해되는 핸드폰이나 게임기 등은 내려놓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진정으로 예배해야 해요. 우리 모두 우리의 큰 임금인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요.

부
모
님
과
함
께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해요. 매일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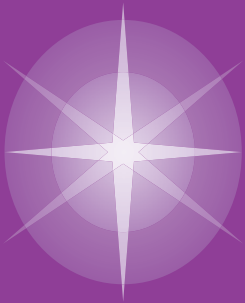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12월 둘째주
2016년 12월 11일~17일





♥ 주제 : 예수님을 기다려요

♥ 암송구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1:10

♥ 성경 이야기 : 평화로운 세계 ▷이사야 11:1-9

♥ 오늘의 포인트 :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로 오셨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세상에서는 어떤 평화로운 모습이 그려질까요?

말씀을 보고 무엇 무엇이 함께 하는지 짚지어 보세요. (6-8절)

- | | | |
|-----------|---|-----------------------|
| 이리 | • | • 곰이 함께 먹으며 |
| 송아지 | • | • 어린 양과 함께 살며 |
| 표범 | • | •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
| 젖 먹는 아이 | • | •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
| 암소 | • | •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
| 젖 떤 어린 아이 | • | •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
| 사자 | • | •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

★ 교육 활동 - “예수님 만들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기로 다짐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예수님을 기다려요

♥ 암송구절 :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 이사야 11:10

♥ 오늘의 포인트 :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로 오셨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평화로운 세계 ▷ 이사야 11:1-9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를 가지고 올 한 지도자를 예언했어요. 그 지도자는 이새의 가문,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며, 또한 지혜와 충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정의롭게 이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한 지도자가 났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하셨고, 정의로움으로 다스리셨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 평화로운 세계 또한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대림절 기간을 맞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기도해요.



Q 1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로운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Pray 내가 바라는 평화로운 세계는 어떤 모습인지 나누어 보세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주세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말라기 2:1~5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

1.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2.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4.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 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5.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말씀 속으로★

1.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과 맺은 언약은 무엇이 약속된 언약인가요?
빈칸을 채워보세요.(5절)

人	口	과	표	히
---	---	---	---	---



★삶 속으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들에게 생명과 평화를 약속해주셨어요. 하지만 말라기가 활동하던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훈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나요? 혹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삶에 길이 되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7.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8.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결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9.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 특사: 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하는 사절

★ 말씀 속으로 ★

1. 제사장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요? (7절)

ㅈ 人



★ 삶 속으로 ★

제사장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말라기가 활동하던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결길로 가도록 했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오늘날 교회의 역할과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해요.

부 모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길 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11.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12.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 말씀 속으로 ★

1. 다음을 읽고, 알맞은 것에는 O, 맞지 않은 것에는 X 표시하세요.(10~12절)

-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 예루살렘에는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 유다 백성은 성소를 깨끗하게 하였다.()
- 남자들은 이방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였다.()
-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된다.()



★ 삶 속으로 ★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는 등 추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야곱의 가문, 즉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내 마음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벧전1:16)'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부모님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저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생기는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 너희가 잘못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제물을 외면 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14.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네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에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네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네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15.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네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16.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 말씀 속으로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나요?(15, 16절)

를 하지 말아라.



★ 삶 속으로 ★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는 가운데 결혼했지만, 증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내를 버리고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제단에서 울고 탄식하며 불평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이방의 여인과 결혼한 것은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세요.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세요. 내가 속한 공동체 - 가정과 학교,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나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서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 기도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내가 가난해져도 부유해져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둘러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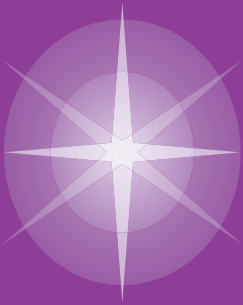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12월 셋째주
2016년 12월 18일~24일



memory time



예수

셋째주

♥ 주제 : 예수님을 기다려요

♥ 암송구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 마태복음 1: 21

♥ 성경 이야기 예수 ▷ 마태복음 1:18-21

♥ 오늘의 포인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8절)
- ②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은 약혼자 요셉은 어떻게 하기로 마음 먹었나요? (19절)
- ③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였나요? (21절)

★ 교육활동 - “익투스 만들기”

익투스(ΙΧΘΥΣ)는 그리스어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익투스에는 숨은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해 오늘날 5행시와 같은 것인데요. 다섯글자에 숨겨진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예요. 초대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서 숨어 지 내곤 했어요. 그래서 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암호로 ‘익투스’를 사용하곤 했지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온 신앙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예수님을 기다려요

♥ 암송구절 :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예수 ▷마태복음 1:18-21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할 날을 준비하며 사랑의 마음과 순결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들을 갖게 될 것을 이야기 해 주었지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갖는 특별한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어요.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요셉은 마리아를 위하여 파혼하려 했어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결혼
하지 않은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드러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마리아를 사랑한 요셉은
마리아를 위하여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날 밤,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 주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
했지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해요.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Q 1 내가 마리아, 또는 요셉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Pray 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

날짜 : 2016년 월 일

부모님 확인 :



말라기 2:17~3:2 “하나님의 특사”

17."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 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로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1."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2.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 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젓물과 같을 것이다.

* 표백: 종이나 천 따위를 바래거나 화학 약품으로 탈색하여 희게 함.

* 젓물: 짚이나 나무를 태운 재를 우려낸 물. 예전에 주로 빨래할 때 사용함.

★말씀 속으로★

1.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낸다고 말씀하셨나요? (1절)



★삶 속으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좋게 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어요. 마음이 괴로워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특사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불과 잿물과 같아서 그분이 임하시는 날에는 모두에게 심판이 행해진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특사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악행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보여줄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사는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몸 바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특사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제가 되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라기 3:3~5 “하나님을 기쁘시게”

3.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4.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날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5.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 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 정련: 충분히 단련함.

* 정련공 : 충분히 단련된 사람. 기술자

★ 말씀 속으로 ★

1.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나요?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적어보세요.(5점)

<보기>

- ㉠ 점치는 자 ㉡ 간음하는 자 ㉢ 금속 정련공 ㉣ 거짓증언하는 자
 ㉤ 품삯떼어먹는 자 ㉦ 레위 자손 ㉧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자
 ㉨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 ㉩ 이방 사람 ㉪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 삶 속으로 ★

하나님의 특사는 은을 단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레위 자손은 지난날처럼 하나님께 올바른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예요. 즉,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옛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특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지고, 깨끗하여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요. 우리 크게 외쳐보아요.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부
모
님
과
함
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성령님! 늘 제 마음 속에 계셔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라기 3:6~9 “하나님의 것”

6.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7.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8.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십일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9.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 헌물 : 바치는 물건

★ 말씀 속으로 ★

1.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흠쳤나요?(8절)

			와		
--	--	--	---	--	--

2. 십일조와 헌물은 누구의 것일까요?(8절)

			의 것
--	--	--	-----



★ 삶 속으로 ★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득의 10분의 1, 즉 십일조를 바치라 말씀 하시며,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어요(민 18:21~24).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말라기시대 사람들은 십일조 규례를 도무지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십일조뿐만 아니라 다른 헌물조차도 드리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흠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묻고 있어요.

우리 모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기로 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제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의 것을 흠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라기 3:10-12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요”

10. 너희는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11.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12.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지므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 온전 :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음

* 소산물 : 생산되는 모든 물건

★ 말씀 속으로 ★

1.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열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나요?(10절)



★ 삶 속으로 ★

하나님께서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놓는다면,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서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 땅이 비옥해지며, 토지의 소산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 온전한 십일조를 원하셔요. ‘아까운데 드려야 할까?’ 혹은 ‘십일조 드리면 복 주시겠지?’ 라는 그릇된 마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예요. 오늘은 주님께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마음의 준비가 되었나요?

부
모
님
과
함
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길 원해요.

제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나 복을 받으려는 그릇된 마음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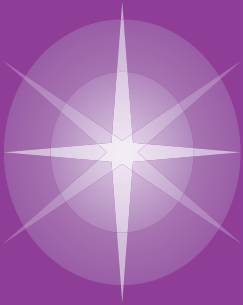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12월 넷째주
2016년 12월 25일~12월 31일



memory time



임마누엘

넷째주

♥ 주제 : 예수님을 기다려요

♥ 암송구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 마태복음 1:23

♥ 성경이야기 임마누엘 ▷ 마태복음 1:22-25

♥ 오늘의 포인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예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예수님이 태어나면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였나요? (23절)

②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23절)

★ 교육활동 - “수료식 및 진급”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예수님을 기다려요

♥ 암송구절 :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 마태복음 1:23

♥ 오늘의 포인트 :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예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임마누엘 ▶ 마태복음 1:22-25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 이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 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아플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Q 1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Pray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13.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14.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15.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 불손 : 겸손하지 못함.

* 거역 :윗사람의 뜻이나 명령을 어겨 거스름.

★ 말씀 속으로 ★

1. 불손한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일까요?(13절)



하는 태도

★ 삶 속으로 ★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며,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재앙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공의가 없다는 것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고 불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악을 미워하시며 언젠가 심판하실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악에 대해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요.

부 모님과
함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길 원해요. 제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라기 3:16~18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16. 그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17.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18. 그 때에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비망록: 잊지 않으려고 중요한 골자를 적어 둔 것.

★ 말씀 속으로 ★

1.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어디에 기록하시나요?(16절)



★ 삶 속으로 ★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비망록(기념책)에 기록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며 자녀처럼 아껴주신다고 약속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억해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억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소망해요.

부 모님과
함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길 원해요.

손에 만져지지 않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하지 않길 원해요. 매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길 원해요. 사랑해요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 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 버릴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2.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 난 송아지처럼 뛰어 다닐 것이다.
3.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 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 말씀 속으로 ★

1. 용광로의 불길같은 날이 오면, 교만한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알맞은 것끼리 연결해보세요.(1~2절)

- | | | |
|-------------|---|--------------------------|
| 교만한 자 | · | ·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난다. |
|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 · | · 지푸라기같이 타버린다. |
| | · | · 뿌리와 가지가 남김없이 태워진다. |
| | · | ·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닌다. |



★ 삶 속으로 ★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용광로의 거센 불길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이 오면 교만한 사람과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불길에 태워지는 멸망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해는 상처를 치료하는 빛으로, 고통과 상처 등을 치료하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할 것이예요.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며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분이세요. 용광로의 불길 같은 날이 온다할지라도, 어떠한 큰 고난이 찾아온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며 치료해 주실 것이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요.

부 모님과
함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제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경험하길 원해요. 저의 몸과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Morning Time

1. 일주일 중 하루를 미리 결정하셔서, 친구가 잠에서 깨는 아침에 곁에 계세요
2. 친구를 잠에서 깨우면서 아래의 내용으로 축복과 기도를 해 주세요.
3. 가능한 친구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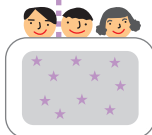
친구가 잠에서 깨어나도록 조심스레 안아주시며 아침 인사를 해 주세요.
친구를 안은 채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세상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이웃에 평화를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 ○○(이)와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친 후 친구를 꼬옥 안아주시고
“사랑해~” 라고 이야기 해 주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1. 일주일 중 하루를 미리 결정하셔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2.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3. 가족과 함께 다음의 시를 읽으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이번 주는 성탄절이에요.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함께 시를 읽어요.

〈성탄인사〉 - 이해인
사랑으로 갓 태어난 예수 아기의
따뜻한 겸손함으로
순결한 온유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사를 나누어요, 우리
오늘은 낯선 사람이 없어요

구세주를 간절히 기다려온
세상에게, 이웃에게, 우리 자신에게
두 팔 크게 벌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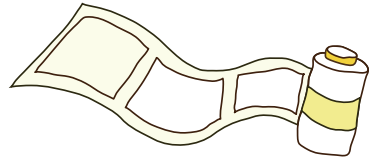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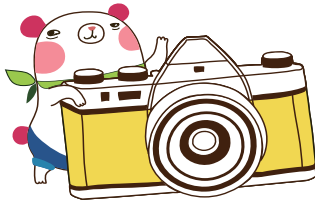
가난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만이라도 죄 없는 웃음으로
엠마누엘 엠마누엘

예수 아기가 누워 계셔
거룩한 집이 된 구유 앞에
우리 모두 동그란 마음으로 둘러서서
서로를 더욱 용서하고
서로를 더욱 신뢰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요

예수님을 닮은 평화의 사람으로 길을 가기 위해
오래오래 꺼지지 않는 등을 밝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름을 더욱 넉넉히 준비해요, 우리

엠마누엘 엠마누엘
예수 아기의 흠없는 사랑안에 새롭게 태어나요.

유니트 PHOTO



유년1부



찬2-1 전차윤 (1부)

유년1부



찬2-1 이채은

유년1부



찬2-1 한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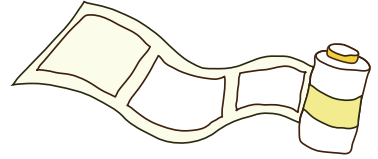
유년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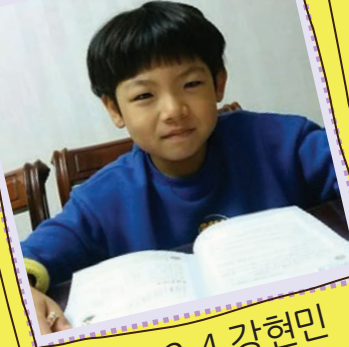
2-2 윤주영



유니 PHOTO



유년1부



2-4 강현민

유년1부



2-4 강지민

유년2부



1-2 송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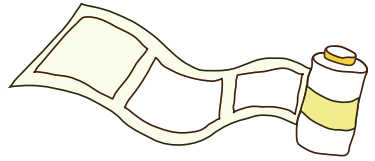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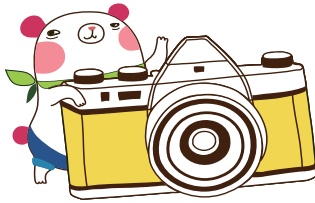
유년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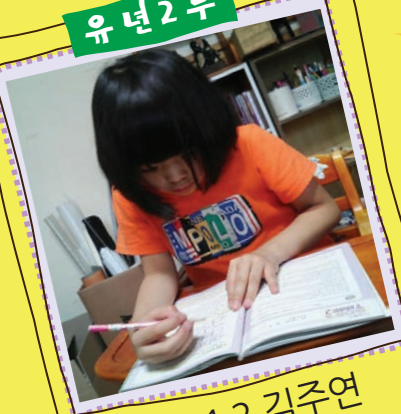
1-2 김서하



위드 포토 PHOTO



유년2부



1-2 김주연

유년2부



2-3 이지은

유년부



2-7 양현우

유년부



유년부 친구들~
위드포토
많이 많이
보내 주세요~

추천도서



12월

제목 : 최고로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

지은이 : 글로리아 휴스턴

그림 : 바버리 쿠니

출판 : 베틀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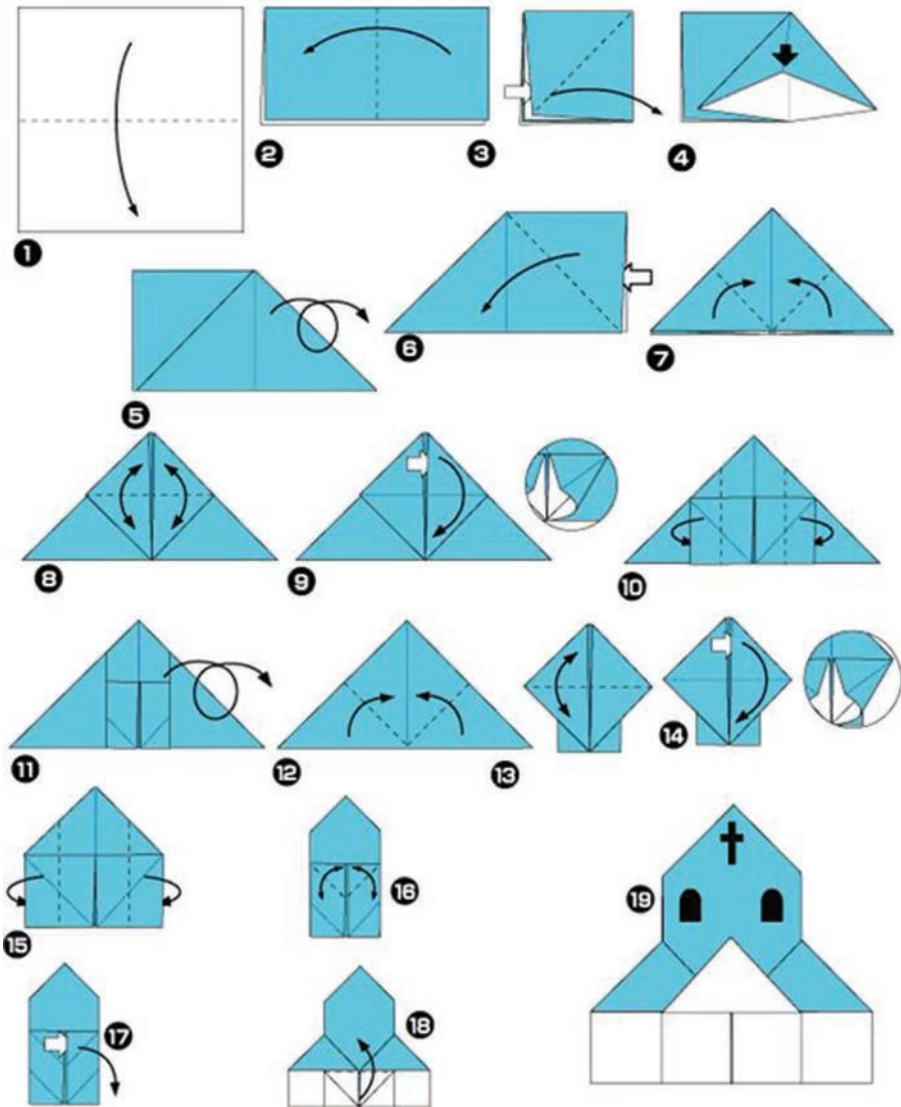
한 가족씩 돌아가며 교회에 놓을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는 파인 그로브 마을. 올해에는 드디어 루시 가족이 나무를 가져올 차례이다. 어느 따뜻한 봄날, 좋은 나무를 찾으러 길을 나선 루시와 아빠는 험한 바위산에 이르러서야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기에 안정맞춤인 전나무를 발견하게 된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남겨 두고 떠나야 한다는 걸 예감했던 것일까. 아빠는 루시를 들어올려 나무 꼭대기에 리본을 묶어 표시해 놓게 한다.

여름이 되자마자 아빠는 전쟁터로 떠나고, 루시와 엄마는 아빠가 무사히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잠들기 전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아빠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루시. 그 소박하면서도 애뜻한 소망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돌아가겠다는 아빠의 반가운 편지에 루시와 엄마는 잠시나마 마음을 놓지만, 그리운 아빠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교회에 무사히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일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한다.

가족이 한 약속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빚어낸 크나큰 용기를 안고 엄마와 루시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을 틈타 험한 바위산에서 전나무를 베어온다. 그리고 엄마는 크리스마스 연극에서 천사 역할을 맡을 루시를 위해 아빠와 결혼할 때 입었던 크림색 웨딩 드레스를 잘라 새로운 드레스를 만든다. 또 남은 조각으로 그 드레스와 똑같은 옷을 만들어 루시와 꼭 닮은 인형에게 입힌다. 그렇게 파인 그로브 교회는 '최고로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게 되고, 루시도 바라던 대로 트리의 꼭대기에 얹어 놓은 크림색 천사 인형을 선물로 받고 좋아한다. 하지만 행복한 크리스마스 날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교회 앞에서 루시와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너무나 보고 싶었던 아빠의 모습. 루시 가족은 행복하게 울려 퍼지는 캐롤 속에서 서로를 꼭 껴안은 채 한참이 지나도 떨어질 줄 모른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날 밤에 펼쳐지는 루시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가족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아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따뜻함과 감사함을 전해 줄 것이다.

“교회 세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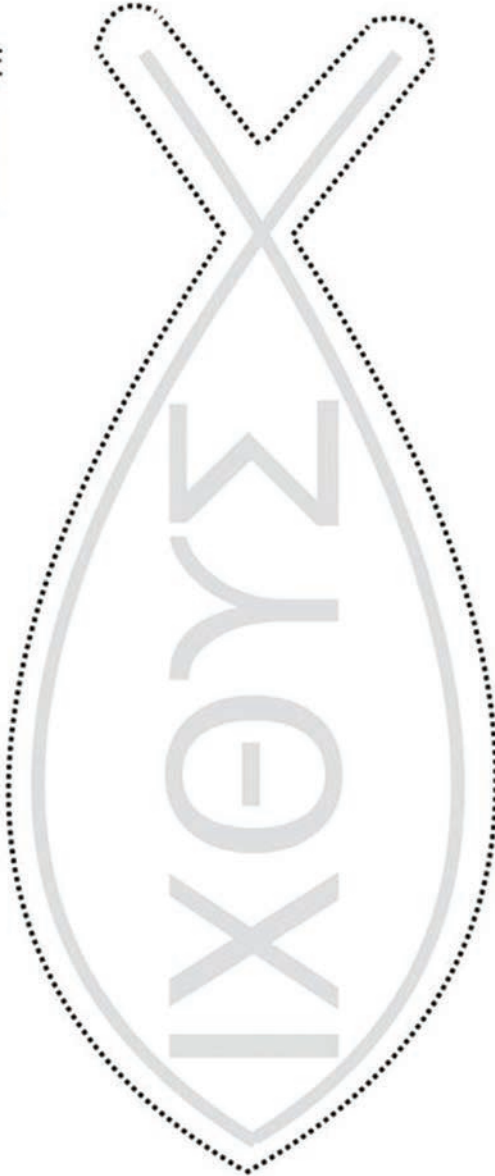


교육활동지

셋째주(12월18일)

“익투스 만들기”

——— 커질
..... 기워



$\overline{\Gamma_{\text{ιστοῦς}}} = \text{예수}$ $\overline{X_{\text{ριστός}}} = \text{그리스도}$ $\overline{\Theta_{\text{εός}}} = \text{하나님}$
 $\overline{\Upsilon_{\text{ιός}}} = \text{아들}$ $\overline{\Sigma_{\text{ωτήρ}}} = \text{구원자}$

STICKER

유년()부, ()학년, ()반

이름:



	QT	QT	QT	QT	말씀 암송	모범
1주						
2주						
3주						
4주						
5주						

